

의견서(개요)

- 공생 사회의 본연의 자세와
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-

2021년 11월

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지식인 회의

지향해야 할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(세 가지 비전)

“누구도 배제되지 않고” 지속 가능한 다양성과 포섭성이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표인 SDGs 이념 등을 근거로 목표로 해야 할 공생 사회의 세 가지 비전

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

향후 일본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구성원으로써 외국인이 포용되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

지향해야 할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(세 가지 비전)

다양성이 풍부하고 활력 있는 사회

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이 풍부한 활력 있는 사회

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

외국인을 포함해 모두가 서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사회

지향해야 할 외국인과의 공생사회의 세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중점 사항

지향해야 할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의 세 가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아래의 네 가지 중점 사항을 들고 그 각각에 대하여 대책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.

*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“외국에 뿌리를 둔 자” 도 배려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1. 원활한 의사 소통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 교육 등을 제공

2. 외국인에 대한 정보 발신 · 외국인 대상 상담 체제 등의 강화

3. 라이프 스테이지 ·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지원

4. 공생 사회의 기반 정비를 위한 대응

정부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생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공생 사회를 실현하고자 대책을 제시하여 KPI(핵심 성과 지표)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행동 계획으로써 총괄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.

일본 내 재류 외국인의 상황 변화 ①

재류 외국인 현황

재류 외국인 수

약 289 만 명(2020년 말 기준) [2019년 말 사상 최고치 기록]

일본 총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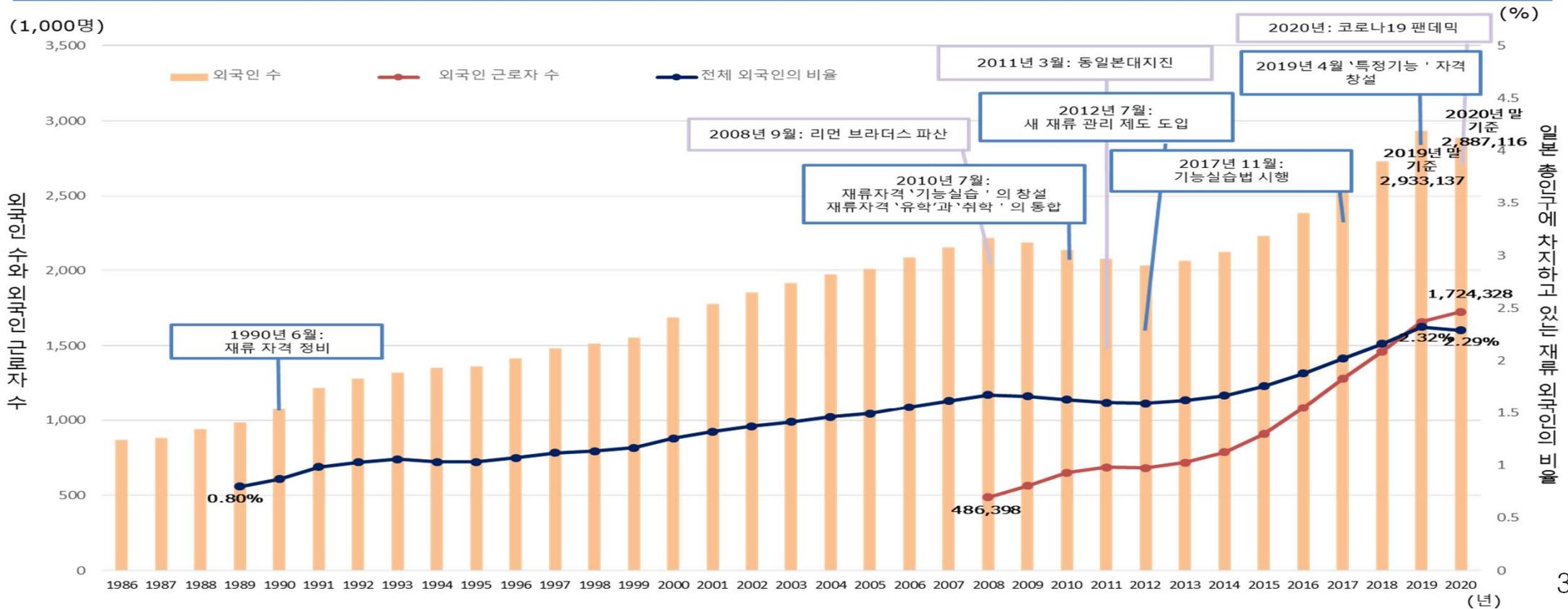
약 1억 2,623 만 명(2020년 10월 1일 기준)

일본 내 전체 외국인의 비율

2.29%(2020년 기준) [2019년에 사상 최고치 기록]

외국인 근로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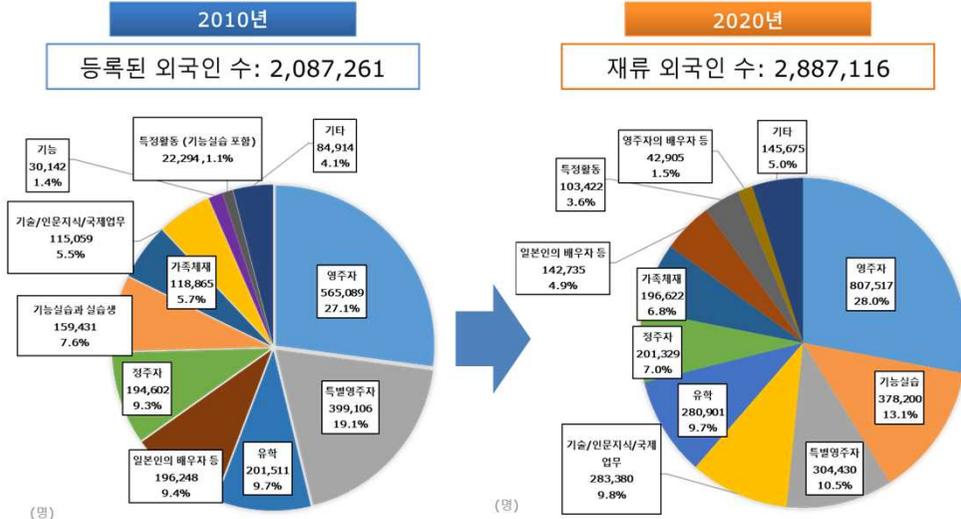
약 172 만 명(2020년 10월 말 기준) [2020년 10월 말 사상 최고치 기록]



일본 내 재류 외국인의 상황 변화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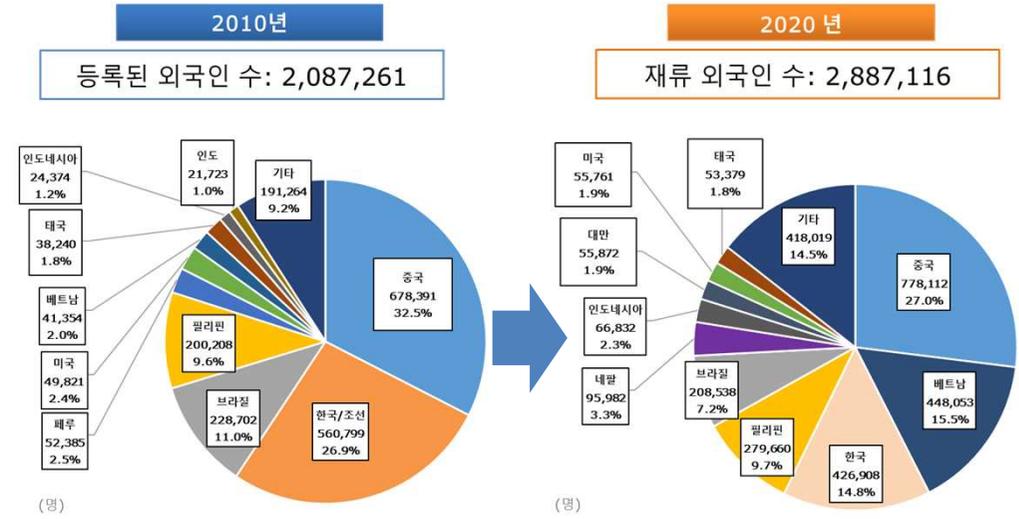
재류 외국인 수 및 구성비 변화

재류 자격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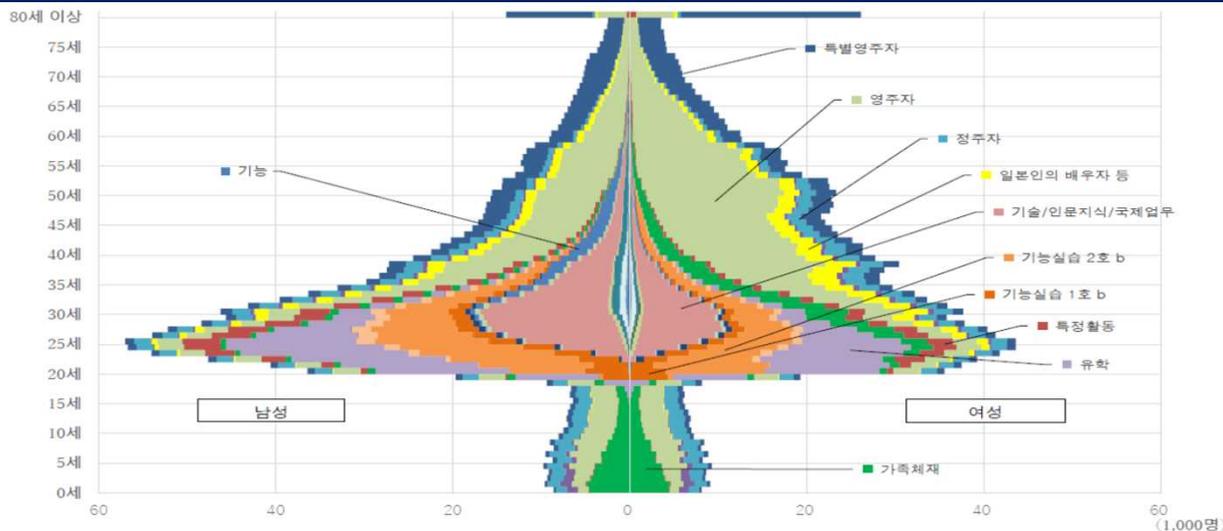
● '영주자'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지만 '기능실습', '기술, 인문지식, 국제업무'의 증가가 뚜렷하다.

국적/지역별



● 한국 및 조선, 브라질의 재류자 수가 감소하는 한편 베트남의 재류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.

성별별/연령별/재류 자격별 재류 외국인 수



● 20 대는 '유학', '기능실습', '기술, 인문지식, 국제업무'의 비율이 높다.
 ● 40 대 중반에서 60 대 중반까지의 여성은 '영주자'가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
현황/과제

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

- 일본어 강좌가 열리지 않는 시구정촌에 사는 외국인 수:
약 580,000 (2020년 11 월 기준)
→외국인에게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.
- 생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실시 유무와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.
→ 일본의 관습과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
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체계적인 일본어 학습

- 외국인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의 레벨을 나타내는 기준이 없다.
→외국인이 개인적 요구와 레벨에 맞춰 체계적으로 일본어 학습을 지속하기가 어렵다.

일본어 교육의 질적 향상 등

- 일본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불균등하다.
- 만족스럽지 않은 근무 조건 등으로 일본어 교사가 장기적인 경력을 만들기 어렵다.
→일본어 교사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수 확보가 과제이다.

주요 대처 방향성

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와 일본의 관습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

<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등을 배우는 환경을 정비한다>

-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레벨에 도달하기 위한 일본어 교육과 일본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한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외국인에게 제공한다.
- 재류 자격 지원 절차 기간을 포함한 다방면의 기회를 이용하여 학습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한다.
-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연계하여 커리큘럼과 교재 작성, 온라인 수업 등의 실시를 검토한다.

<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체계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>

- 외국인이 학습 요구와 수준에 맞는 일본어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본어 능력의 평가 기준(일본어 교육의 참조틀)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교육 수준을 명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.

<일본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의 확보에 이바지할 방안을 추진한다>

- 인가된 일본어 강사(가칭)를 위한 자격제도 창설 및 일본어 교사가 장기적인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.

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고 외국인 대상 상담 체제 등을 강화 (중점 사항 2)

현황/과제

외국인에 대한 정보 발신

● 관련 기관이 취하는 시책(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는 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 조치 포함)에 관한 정보가 발신 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선택하기는 어렵다.

● 각종 지원 정보의 전달 수단과 외국인이 정보를 입수하는 매체가 일치하지 않는 등 필요로 하는 지원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.

→외국인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.

외국인 대상 상담 체제

● 외국인 증가와 국적 다양화로 통역사를 구하기 힘들다.

●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교부금이 지역 사정에 따라 폭넓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.

● 외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관련 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.

●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등이 일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→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.

주요 대처 방향성

외국인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체제의 강화를 통한 환경 정비를 한다

<외국인의 관점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>

- 정보 내용의 고안(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)
 - 제공되는 정보의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작성한다.
- 정보 전달 방법(어떻게 전달할 것인가)
 - 서면 정보 외에 시각정보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한다.
- 전달 수단의 고안
 - 마이넘버 포탈을 활용한 “맞춤형”과 “푸시형” 의 정보 발신

<외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다가가는 상담 체제를 강화한다>

- 일원적 상담 창구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.
 -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교부금의 교부요건을 재검토하고 일원적 상담 창구의 설치를 촉진한다.
- 지역 사회에서 관련 기관의 연계와 외국인 지원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.
 - FRESC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상담 창구의 설치 등을 한다.
 - 민간 지원 단체 등을 통한 일본의 정부 지원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

라이프 스테이지 ·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지원(중점 사항 3)

현황/과제

외국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지원

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일본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

외국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지원

라이프 스테이지가 이행해 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지원 (이음새에 대한 필요한 지원)

● 취학, 진학, 취직 등 라이프 스테이지를 이행하면서 과제에 직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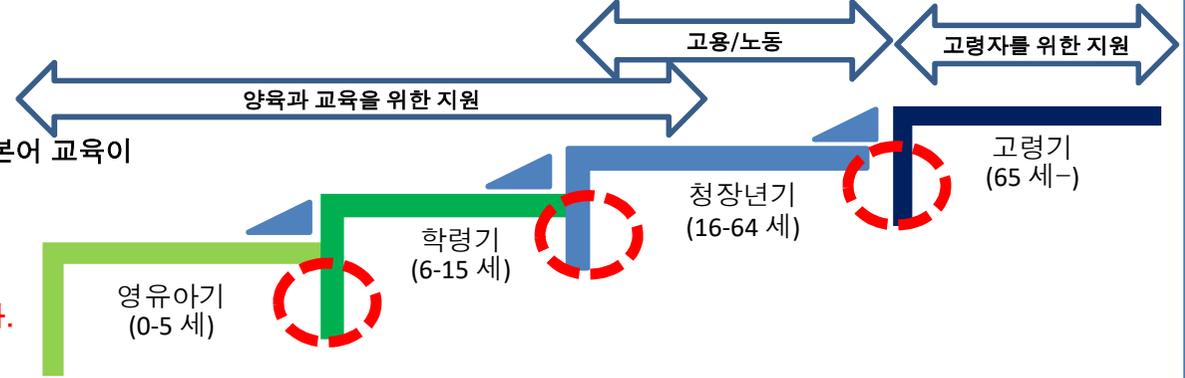
(과제의 예시)

● 전체 고등학생 등(특수 학교 고등학생 제외)의 중도 퇴학률은 1.3%지만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고등학생 등(특수 학교 고등학생 제외)의 중도 퇴학률은 9.6%이다.

● 각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

→ 각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외국인을 둘러싼 실태와 과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.

→ 다음 스테이지로 이행하는 '이음새'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.



주요 대처 방향성

실태를 파악하고 각 라이프 스테이지 및 각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다

<“영유아기”, “학령기”, “청장년기” 초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(임신, 출산, 육아, 취학, 진학 등 지원)>

- 외국인의 아이와 부모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실태 조사 및 요구의 파악 등을 실시하고, 육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.
- 외국인 자녀의 취학 촉진을 위한 취학 상황을 파악한다.(일체적 관리 · 파악) 프레스쿨 설치 등을 지원한다
-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롤모델 제공 등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총체적 커리어 형성을 지원한다.(고교 입학시험에서 특별 입학 정원과 수험시의 특별한 배려)

<“청장년기”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(취업 등의 지원)>

-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도구로써 쉬운 일본어 도입을 촉진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실시한다.
- 외국인의 수용 기업에 의한 일정한 비용 부담아래, 취업의 안정이나 경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수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.

<“고령기”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(돌봄 등의 지원)>

- 외국인이 놓여진 상황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지원에 대해 검토한다.

공생 사회의 기반 정비를 위한 대응 (중점 사항 4)

현황/과제

1 공생 사회 실현을 향해 의식을 양성한다.

- 학교, 직장, 지역 등 사회의 다방면에서 외국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.

2 사회 제도 등의 지식 습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

- 일본 문화, 관습, 세금, 사회 보장 등 사회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등이 있다.

3 외국인의 생활 상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

- 정부 통계 등에서 '국적' 등이 조사항목으로써 채용된 통계는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생활에 관련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.

4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재류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

- 민간 지원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.
- 각 관련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코디네이트하는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.
-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적절한 재류관리의 실현을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마이넘버제도와 연계 등을 통한 재류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취득이 필요하다.

5 외국인의 사회 참여

- 외국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관점의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.
- 사회 참여의 의욕을 가진 외국인에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.

→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지향해야 할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정비가 충분하지 않다.

주요 대처 방향성

지향해야 할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식 양성, 사회 제도 등 지식 습득의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기반 정비를 시행한다

<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의식을 양성한다>

- 외국인과의 공생에 관련된 '계발 월간'을 실시하는 등 공생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.
- 유아 교육과 학교 교육 등에 있어서 공생을 위한 교육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다.

<사회 제도 등의 지식 습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>

- 세금 납부와 사회보험료 납부 등 공적 의무에 관련된 정보를 생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다.

<외국인의 생활 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한 정부 통계 등을 내실화 한다>

- 정부 통계를 내실화 하는 등으로 외국인의 생활 상황에 관련된 실태 파악, 해당 실태에 기반을 둔 시책의 기획, 입안 및 KPI에 기반을 둔 시책을 진척시키고 관리를 실시한다.

<공생 사회의 기반 정비를 위한 정보 수집 강화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>

- 민간 지원 단체와 지원을 조정할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,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.
- 종합적인 지원을 코디네이트하는 인력을 육성하고 인증 제도를 검토한다.